

‘판소리 성지’ 광주서 깨어난 동학 정신

창극 ‘여울물 소리’ 공연 리뷰

관객 사로잡은 연출·무대 돋보여
지난 7~8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관객 호응·기립박수 쏟아져
혼란 속 구한말, ‘희망’ 노래
“시대 거스른 공감성 끌어내”

“하늘이 바로 사람이요,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깊어져 가는 가을, 판소리의 성지 광주에서 130년 전 백성들이 외쳤던 동학의 자유정신이 깨어났다.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극장은 광주시립창극단 35주년 기념작 ‘여울물 소리’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 모두 숨죽이며 무대에서 펼쳐지는 열연과 국악기·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힘 있고 감미로운 음향을 감상했다. 단원의 열정적인 솔로 무대가 펼쳐질 때면 기립박수를 쏟아내는가 하면 해학적인 장면에선 웃음소리를 내며 호응했다.

창극 ‘여울물 소리’는 황석영 작가가 쓴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연옥’은 어머니 구태덕과 함께 강경 객주를 운영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다 우연히 찾아온 이신통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동학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이신통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고 연옥은 그를 찾기 위해 나선다.

이신통이 연옥과 재회하자 큰절을 올리며 시작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이들이 만나게 된 과정과 역경, 개인적이고 사소한 에피소드 등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 7일 광주 북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무대에 오른 광주시립창극단 35주년 기념작 ‘여울물 소리’.

이후 극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들의 재회로 회귀한다.

수많은 인물의 서사와 방대한 이야기를 갖춘 원작을 한정된 시간 안에 전달하기 위해 사건들의 선별 배치와 압축이 이뤄졌다. 특히 시간과 공간을 소설의 전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일부 새로운 사건을 추가해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 당대 출신 신분으로 인한 한계와 현실을 꿰뚫고 이 때문에 자신의 학식과 재주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 인물의 삶을 ‘이신통’이라는 극 중 캐릭터로 보여준다.

흔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 대주제로 한 이야기꾼의 인생을 추적하며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형식은 완성도를 높이고 메시지의 전달성을 강화한다. 제국주의의 침입과 함께 이식문화로 시작된 한국 근현대문학의 원류를 더듬어

현대화된 창극으로 재탄생된 작품을 감상하며 관객들은 잘 짜인 서사의 숲에 들어선 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날 열린 공연은 무대 공간의 여백을 활용한 연출이 눈에 띄었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을 한 무대에 보여주며 공간의 넓이를 십분 활용했고 동명의 원작 소설이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창극의 특징을 무기로 각색해 냈다.

극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시시각각 변하는 무대 조명은 관객으로부터 몰입감을 높였고 섬세한 선율과 웅장한 음의 조화로운 결합은 어느새 혼란으로 가득했던 구한말 시대로 빠져들어 현장을 목도하는 경험을 선사했다.

중후반부 소리꾼들이 국악기를 신명나게 연주하며 이신통이 이에 맞춰 들기춤

을 추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이어진 이신통이 홀로 ‘이야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노래하자 이날 관객들에게서 가장 큰 호응이 잇따랐다.

극이 후반부로 들어서자,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여향’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다. 여음 끝에 오는 고요, 비어 있기도 하면서 채워지기도 하는 끝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여향’에 빗대 표현하며 소리꾼의 삶을 관조한다.

또 여향을 강조함으로써 끝없이 순환해 미완성의 상태에서 후대에 완성의 한 획으로 전해줄 것을 기대하는 ‘화수미제’의 질문을 남긴다.

이어 극은 모든 극단의 출연진이 주제를 관통하는 ‘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의 이야기를 후세에 반드시 전하다오’를 부르면서 막을 내린

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시립창극단은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1989년 창단돼 광주의 새출발을 함께한 예술단이다.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창극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여왔다”면서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었으며, 도시 곳곳에서 판소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여울물 소리’에서도 ‘광주의 힘’ 판소리를 바탕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인 광주시립창극단에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여울물 소리’의 총감독·지휘를 맡은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는 “그동안 광주시립창극단에서는 이순신 등 큰 업적을 세운 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을 여럿 선보여 왔다. ‘여울물 소리’는 스펙터클한 연출보다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게 풀어낸 작품이다”며 “극의 배경이 되는 130여년 전과 현재에도 통용되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선택과 갈등의 순간 어떤 흐름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론을 제기했다. 시대를 거스른 공감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명의 원작을 선택해 각색하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어 “광주시립창극단은 예향의 도시 광주의 예술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중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울물 소리’를 향한 호평 시례에 힘입어 앞으로 서울 진출 등 전국적인 순회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찬기자

전남농업박물관 “행복한 민화 감상하고 힐링하세요”

24일까지... 서민 삶·예술가치 조명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오는 2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민화 특별전 ‘행복한 민화(민화), 기복과 해학·소망을 담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목포민화연구회 회원들이 그린 25점의 민화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민화의 다채로운 세계를 소개한다. 민화는 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즐겼던 그림으로, 행복, 출세, 장수 등을 기원하며 해학적 요소로 생활 속 활력을 불어넣는 예술이다.

전시는 1부 ‘민화 속 자연과 삶의 조화’, 2부 ‘민화에 담긴 희망과 기원’으로 구성됐다.

1부는 초충도, 군집도, 화조도, 봉황도 등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민화의 기복적 상징성을 조명하며 장수와 부귀영화를 기원하던 서민의 일상에 사랑받은 작품들이다.

2부는 책가도, 문자도 등 다양한 기물과 기호가 담긴 작품을 통해 민화 속 함축적 메시지를 탐구한다. 민화가 가진 예술적 감각과 소망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민화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서민의 소망과 문화를 담은 ‘행복화’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조상이 전한 해학과 소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ACC 미래상’ 김아영 작가’ 전시대담’ 성료

지난 9일 문화정보원 극장3 인공지능·게임엔진 등 활용 제작과정 공개·작품 의미 설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9일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ACC 미래상’ 첫 수상자인 김아영(사진) 작가의 전시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와 연계한 ‘전시 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담에서 김 작가는 생성형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게임엔진을 활용한 제작한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의 제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시간성’과 ‘근대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영상, 설치, 공연 등의 다양한 미적 언어로 발화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주제적 키워드와 비평적 관점에서 입



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시를 준비한 오메미 ACC 학예연구사는 전시의 기획 의도와 준비 과정을 설명했고 김해주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선임 큐레이터가 대담자로 참여해 김 작가의 작업 세계와 다양한 비평적 시각을 분석했다.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27분의 3채널 영상과 해시계를 담은 거대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대형 설치 작품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다양한 전통적 시간관을 복원해 현대성과 결합하고 전유함으로써 도래하지 않은 상상된 미래를 펼쳐낸다. 전작의 두 주인공이 서울이 아닌 가상의 공간 ‘노바리아’에서 배달기사로

등장해 소멸된 시간관을 담은 유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간의 총물을 그린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미사용 이미지가 작품 후반부에 1분 30초 동안 상영되며, 이 ‘파일의 구간’은 전시마다 다르다.

ACC에 따르면 이번 ‘ACC 미래상: 김아영’의 전시를 보러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예술감독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장 클라우스 비센바흐, 영국 미술평론가 루이자 벅, 도쿄 모리미술관장 마미 카타오카 등이 ‘꼭 봐야 할 전시’로 꼽거나 SNS를 통해 추천 후기를 남긴 바 있다.

한편 ‘ACC 미래상 2024: 김아영’ 전시는 내년 2월16일까지 ACC 복합전시 1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박찬기자

전남대 박물관, ‘바람이 분다’ 오윤종 작가 초대전

28일까지 역사관 기획전시실서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오윤종 작가 초대전 ‘바람이 분다’를 오는 28일까지 대학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오윤종 작가는 대자연과 무한한 시공간을 자신의 세계관이 투영된 세상으로 표현하는데 탁월하다. 공간과 선의 미묘한 움직임에 집중한 다양한 화면 구성과 여러 번의 붓질로 쌓아 올린 이미지들의 조화로운 배치는 숨과 바람의 자리를 구현한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심과 외로움의 감정을 강렬한 색채로 풀어내며, 고요히 부유하던 세상이 불어오는 바람에 섞이고 순환되는 과정을 동적이고 유연한 선으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윤종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원형이나 오면체 등 입체적인 모양과 7m가 넘는 초대형의 캔버스에서 잔잔한 바람과 휘감아 돌듯 펼쳐지는 색채의 파노라마를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동한 기자

바이올린 여제 ‘사라 장’, 올 연말 ACC 무대 오른다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내달 26일 문화전당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2월26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슈퍼클래식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올해 데뷔 35주년을 맞은 사라 장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한국 투어 당시 전 도시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인기



를 입증한 바 있다.

탁월한 기교와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아 온 그녀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명곡을 들려준다. 특히 고전과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곡들을 연주하며, 폭넓은 음악 세계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는 미국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잘데와 함께 요하네스 브람스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꾸린다. 브람스 곡으로는 초기작인 소나타 C단조(F.A.E. 소나타 중 스케르초 다단조)와 마지막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라단조를 선보인다. 또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라장조를 연주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 관람권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찬기자